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20××년 세계 □□ 사이클 대회 A시 유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클 선수 ○○○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렘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마흔두 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 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전 대회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어.
- ②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 ③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④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시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⑤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2.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전략 예상 평가 항목	강점 부각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대회 취지 부합성	㉠	㉡
대회 개최 여건	㉢	㉣
대회 운영 능력	㉤	

- ① ㉠: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보여 준다.
- ② ㉡: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③ ㉢: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 ④ ㉣: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 ⑤ ㉤: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3.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므로 A시가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②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③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 ④ A시가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 ⑤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4~5]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도-’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고’처럼 어간이 ‘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버>더위’에서와 같이 ‘ㅂ’ 또는 ‘ㅅ’ 앞에서는 반모음 ‘ㅛ / ㅜ [w]’로 바뀌었고, ‘도보시니>도오시니’, ‘서불>서울’에서와 같이 ‘ㅅ’ 또는 ‘ㄱ’이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고’ 또는 ‘ㄷ’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서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서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밭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4.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짓고’와 현대 국어의 ‘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5.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본	굽게	고와	고은
② (선을) 짓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벼	누본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잡게	자바	자본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① 내가 지난날 토변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으로써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붙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豐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임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물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 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 사부는 설법(說法)을 배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

* 풍도옥: 지옥을 이르는 말.

* 출장임상: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 공명신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낸 후 물러남.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④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 ①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 ②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⑤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9~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㉔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 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㉕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㉖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㉗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㉘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㉙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㉚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㉛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가]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㉝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 ②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정답>

영역	화법(2016 수능 B형)			문법(2017 6평)		문학 '고전소설'(2014 6평-A)			독서 '사회'(2018 수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정답	①	②	⑤	②	①	③	④	①	⑤	①	①	④	③	②